

광주시, 비대면 시대 시민과의 소통 빛났다

랜선 소통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선정

주인의식 가진 생산자로서의 변화 유도

시민들이 광주를 위한 소통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직접 뽑는 '2020 랜선 소통콘텐츠 공모전' 본선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주광역시는 랜선 소통콘텐츠 공모전 본선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온라인 문화·교육 공유 플랫폼 '광주인의 장(場)', 광장'을 제안한 '비장'팀이 일반부문에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장하시죠? 시장(市長)하세요!'라는 주제로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만든 영상콘텐츠를 선정해 시 대표 홍보매체 등에 홍보하는 사업이다.

지난 11월 총 48건을 접수받아 예선심사를 통해 16개 본선 진출 작품을 결정했으며, 이번 본선에서는 발표자와 시민으로 구성된 청중심사단 100여명이 화상회의시스템에 동시 접속해 작품 프레젠테이션(PT)과 평가를 실시간으로 진행했다.

일반부문 대상을 수상한 비장팀의

'광주인의 장(場)', 광장'은 온라인 문화·교육 공유 플랫폼에 참여하는 과정을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표현해 심사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청소년부문 대상에는 등교길을 직접 걸으며 촬영한 영상에 애니메이션을 접목시켜 흥미롭게 표현한 '쾌적하고 안전한 등교길'을 제안한 윤소윤(금호중2) 학생이 수상했다.

일반부문 최우수상은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의 인터뷰를 담은 'JOY'팀과 문화 마일리지 시스템을 제안한 'GSD'팀이 선정됐으며, 살기 좋은 광주를 위한 아이디어를 동영상으로 표현한 총 16개 작품이 수상했다.

수상팀에게는 광주시장상과 제일기획 사장상 등의 표창과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등 상금이 각각 전달됐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기획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참여하고, 소셜네트워크(SNS) 시민참여



평가 점수 20%, 랜선 청중심사단 점수 30% 등을 반영해 최종 우수작을 선정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주도해 공정하게 치러낸 행사였다.

또 시민이 콘텐츠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서의 변화를 유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광주를 위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공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공모전 본선과 국민참여평가 등은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모든 과정을 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

중계했다. 입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s://contents.gwangju.go.kr>)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김이강 시 대변인은 "이번 공모전이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민들과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시도한 기회가 됐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측면에서 민선 7기 '소통'의 시정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동구, 소규모 재생사업 마을기록자 13명 배출

광주 동구는 지난 17일 산수동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2020년 소규모 재생사업 마을기록자 양성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을기록자 양성교육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지원1동·계림1동 소규모 재생사업 대상지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기록의 의미와 방법론에 대한 강의 및 실습, 워크숍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총 13명이 수료했다.

동구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직접 참여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확대·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다.

서구, 2020 규제개혁 자치구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광주 서구가 규제개혁 자치구 추진실적 평가에서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광주시는 5개구를 대상으로 매년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지자체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부합동평가 지표, 인증제 진단 6개 지표를 평가했으며, 그 결과 서구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4천만원과 기관표창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서구는 그동안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해 규제발굴을 적극 추진했으며,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맞춰 업무담당자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해왔다.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갤러리 전시작가 모집

광주 남구는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 활성화와 빛고을공예창작촌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도 갤러리 빛결 전시 작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갤러리 빛결 전시작가 모집은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고시공고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양과동에 소재한 빛고을공예창작촌 사무실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bit937@daum.net)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북구,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광주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5천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공자원의 개방·공유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체 개선 활동 등 환류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으며 전문가와 국민 평가단의 ▲개방자원 확대·홍보 실적 ▲주민 서비스 개선 노력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광산구, '무한상상 리빙랩' 결과공유회 개최

광주 광산구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17일 '무한상상 리빙랩 결과공유회'를 개최했다.

리빙랩(Living Lab)은 사용자 중심의 생활 문제 발견·해결 활동임과 동시에, 사회 모든 문제를 실험대상으로 다양한 삶의 현장을 실험할 삼아 진행하는 사회 혁신 기법.

광산구는 지난해부터 '무한상상 리빙랩'을 진행해오고 있다. 센터에서 열린 이번 결과공유회에서는, 올해 진행된 '광산교육플랫폼 개발 아이디어 워크숍'과 '장목읍지 주민 활용 아이디어 워크숍'에서 제시된 시민 해법이 소개됐다.

임형택기자

광주시, 양성평등정책 우수 자치구 선정

성평등의식 확산·여성참여 촉진·여성 안전 등 평가

광주광역시 2020년도 자치구 양성평등정책 평가결과 광산구를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0년도 양성평등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해 결정됐다.

평가항목은 성평등의식 확산 및 여성참여 촉진, 여성 안전과 권익 향상, 일과 생활의 균형 등 3개 분야 13개다.

지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던 광산구는 올해 성별영향평가정책 개선, 주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확대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동구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확대 등 일

과 생활의 균형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북구는 성별영향평가정책 개선, 성인지 교육 이수율 등 성평등의식 확산 및 여성참여 촉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장려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산구 500만원, 동구 300만원, 광산구 2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했다.

김순옥 시 여성가족과장은 "광주시 양성평등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양성평등 문화가 자리잡아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광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희기자

전남도, 지역복지사업 평가 '최우수'

지역복지사업 평가 4년 연속 수상 '성과'

전라남도는 보건복지부 '2020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의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전라남도는 이 부문에서 지난 2017년 대상에 이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연속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펼쳤으며, 특히 최종 선정된 8개소 중 전남지역에서 전남도를 포함한 4개 지역이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전라남도를 비롯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선 진도군이 대상, 영암군이 최우수상, 강진군이 우수상을 수상해 총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형 긴급생활비' 및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따른 소득·재산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어려운 복지대상자들에게 복지급여를 신속하게 제공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은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급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가 노력한 ▲통합가구 인적정보 기간 내 처리 ▲30일 내 변동알림 처리 및 적절성 ▲30일 내 소득·재산 소명자 사후관리 처리 등 7개 지표에 대해 1년간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수상은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다.

이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고 적절한 복지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실 있는 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조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합니다.

1. 발전설비용량 : 999kw
2. 사업개시예정일 : 2021.06
3. 사업운영기간 : 2021.06~2046.05(예정)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20.12.16.~2020.12.24.까지 전남 목포시 미항로 191-4 2층 일양산업으로 인적사항과 의견을 기재하셔서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이메일 ilyang00@daum.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발전소명	6. 신청인	7. 용량(kW)	8. 발전소 위치 및 면적	
1. 풍성한 미래의 태양광 발전소 1호	임민수	998.8	전남 영암군 삼호읍 동호리 산67-1, 1019, 1021-2, 1021-5	16,865㎡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말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고소득층				저소득층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노동연구원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과 근무 시간에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기를 실천으로 기함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에게서 사랑을 받습니다.